

## OECD 산업혁신위원회 제 120차 회의참석

- 오영석 선임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센터)

### I. 출장개요

1. 출장자 : 오 영석 선임연구위원 (산업경제연구센터)
2. 출장기간 : 2012년 4월 15일 ~ 2012년 4월 20일
3. 출장지역 : 프랑스 파리 (OECD 본부)
4. 출장목적
  - OECD 산업혁신위원회 제 120차 회의 참석

## II. 산업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### 1. 핵심 요지

- OECD 산업혁신위원회 120차 회의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추진경과 발표 및 관련 논의, 향후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.
  - 새로운 성장의 동력(지식기반자산),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요자 측면의 정책을 반영한 녹색성장, 산업동력과 일자리창출 강화, 글로벌 가치사슬, 스웨덴의 혁신정책 리뷰 등 프로젝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있었고, 산업정책 평가 등 과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.
- 2012년 지식경제포럼은 “강하고,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 전략”을 주제로 9.18-1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.
  - 동 포럼의 세부 의제는 CIIE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며, 특히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비OECD 회원국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.
  - 한국 측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서울에서 개최될 2012 글로벌 지식경제포럼에 많은 국가들이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각국의 참여를 독려함.

### 2. 산업혁신위원회 제 120차 회의(4.17(화)-18일(수))의 주요 내용

- 새로운 성장의 원천

- OECD국가는 지식기반자산(Knowledge-based Capital) 투자를 확대중이고,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서 지식기반자산의 역할이 중요해짐.
- 지식기반자산 강화를 위해서는 조세, 경쟁정책, 창업, 금융,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.

□ 현재 진행중인 여러 연구에 대한 요약 보고

- 녹색성장, 새로운 성장의 원천,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 부문에서 혁신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중이며, 녹색성장을 주제로 '11. 10월 World Bank 및 BNDES(브라질) 행사, '12. 3월 멕시코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함.
- 주요한 CIIE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임.

□ 녹색성장 육성 : 새로운 사업모델과 정책적 함의

-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구매, 규제, 표준화 등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제시되었으며, 전체적 시각에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경쟁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임을 강조함.

□ 동태적인 기업연구 및 기업가 정신 강화 프로젝트

- 기업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평균적인 기업 혹은 고성장기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.
- 앞으로는 모든 상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균질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.
- 공식 사업등록 데이터로부터 11개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원국 간

성장동력의 차이를 확인하고,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의 차이를 조사할 계획임.

#### □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s)

- 세계화의 심화는 국제경제 및 무역에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.
-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이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,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면,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함.
- 수십년 간 다국적 기업의 위탁 활용 등을 보면, 글로벌 가치사슬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나, 현재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스피드, 스케일, 복잡성을 새롭게 추가시키고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국가, 회사, 산업, 활동을 연결시킴.

#### □ 스웨덴의 혁신정책 리뷰

- 스웨덴은 가난한 유럽국가로 시작하여 1850년부터 기계공장, 철강제조, 철도 건설 등 2차 산업혁명에 참가하였고, ABB, 에릭슨 등 기업을 형성함.
- 스웨덴은 단단한 경제적 펀더멘탈과 높은 생산성,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R&D 투입에 따른 대학과 회사 부분이 강점임.
- 반면, 지역혁신정책의 불확실한 역할, 지나치게 많으면서 규모가 작은 대학센터, 대학과 중소기업 간 부족한 협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-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 이동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.

#### □ '산업정책 평가' 프로젝트 제안

- 과거의 보조금 지급, 핵심기업 중점 육성 등의 산업정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며, 산업정책의 정의에 대해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□ OECD CIIE 프로그램의 '13-'14년도 업무과 예산

- 프로그램은 5월에 초안이 확정되고, 6-7월에는 예산위원회에서 사전 리뷰가 진행되고 12월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계획임.

□ 2012 지식경제 글로벌 포럼

- 2012 지식경제 글로벌 포럼은 '강하고, 지속가능하고, 포괄적인 성장 전략'을 슬로건으로 2012년 9. 18- 19 서울에서 개최되며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중인 비OECD국가의 참여에 중점을 둘 계획임.

- 18일은 성장과 고용의 원천 창출, 19일은 친환경적이며 포괄적 미래를 위한 방향이 아젠다이며, 글로벌 포럼의 아젠다는 CIIE의 프로젝트와 밀접히 연결할 것임.

- 한국이 글로벌 포럼을 개최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비OECD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.

- 글로벌 포럼을 통해 여러 국가들이 OECD CIIE 업무과 소통하고,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.

- 한국은 2012년 글로벌 포럼 개최에 감사하며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서울에서 열리는 포럼에 많은 국가의 참여를 요청함.

**3. 워크숍 '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' 토론내용  
(4월 18일 오후 개최)**

□ 중소기업과 고용창출형 성장

- 최근 John Haltiwanger 교수와 OECD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EU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, Micro-firm이 가장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 필요: 신생기업 혹은 영세규모의 기업이 적은 수의 노동자를 신규채용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, 이 경우 고용증가율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(예를 들어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5명을 신규채용하면 50%의 고용증가율로 나타남)
- 이에,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는 Micro-firm과 High Growth Firm은 구분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됨
- 이 과정에서,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형 성장이 Smart Growth, Sustainable Growth, Inclusive Growth의 조화라는 European 2020 Strategy에 조응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존재함.
- 이러한 논의 속에서, 그리스와 뉴질랜드는 최근 Micro-finance 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음을 시사함.
- 일본: 내수시장 중심의 Micro-firm 지원과 해외시장 중심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이에 고민하고 있음.
- 국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
  - 국제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.
    -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도입을 통한 정책의 범위 확산(Broadening) 과 지원대상의 합리적 선정>Selectivity)을 병행
  - 그러나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 나타나듯이 국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 차이를 노정함.

- 향후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별로 부정적인 나라들이 많아 지혜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증대
- 따라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, 아시아의 경제성장 둔화, 고유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아래의 주제를 토론 의제로 제시함.
  - 중소기업의 매출, 투자, 고용 및 금융조달 현황
  - 현 상태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을 주도하는 부문
  -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 현 상황 평가
  -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도입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조치 관련 회원국의 평가
- 국별 주요 동향 및 추진정책에 대한 논의
  - 많은 회원국들이 동 주제에 대한 자국의 경험을 발표하였는데, 중소기업이 세계 경기회복 및 경쟁력 향상에 중요함을 강조
  - 영국: 중소기업의 실물투자·고용·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,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 중
  - 뉴질랜드: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
  - 미국: 중소기업 펀드 조성 등의 정책 추진
  - 영국: 이외에,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소화,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용자 및 보증 확대,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, 중소기업 지분투자 확대 및 미소금융 강화 필요성 등이 강조

#### 4. 평가

- 첫째, OECD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지식기반 자산에 많은 관심을 가

지고 있고, 지재권, 특허, 의장권 등 다양한 지식기반 자산의 확보에 대한 정책적 고려(조세, 금융지원, 규제, 경쟁제한 철폐 등)가 중요함을 강조함.

-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, OECD의 지식기반 자산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둘째, OECD는 그동안의 산업정책(보조금 지원, 핵심 기업 중점육성 등)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.
- OECD의 새로운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, 글로벌 경제위기 및 신흥 개도국 주도의 성장 여건 하에서 산업관련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.